

광주·전남 주요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 '뚝'

전남대 2.7대 1 조선대 2.31대 1 동신대 1.34대 1 학령인구 감소·수도권 쏠림에 일부 '정원 미달' 위기 대학들, 파격적인 장학혜택 등 신입생 모시기 '사활'

2021학년도 정시모집을 마감한 가운데 광주·전남 주요 대학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기록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의 악재를 뛰어넘지 못한 대학들이 '신입생 미달 사태'라는 위기를 맞을 게 가늠되는 분위기다.

12일 광주·전남 각 대학의 정시모집 경쟁률 발표를 보면 전남대는 정시모집 가·나군 응시원서를 접수한 결과 총 1629명 모집에 4398명이 지원해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경쟁률 3.11대 1, 2019학년도 4.11대 1보다 하락할 수 있다.

조선대는 총 1438명 모집에 3327명이 지원, 2.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2.78대 1, 2019학년도 3.4대 1보다 하락했다. 전형별로는 가군 일반전형이 2.39대 1, 지역인재전형이 4.06대 1, 군사학과전형이 1.27대 1, 실기전형이 5.58대 1을 보였다. 나군 일반전형은 2.20대 1, 나군 실기전형은 2.54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동신대는 전체 617명 모집에 824명이 지원, 평균 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동신대 정시모집 경쟁률은 2.30대 1이었다. 최고 경쟁률은

보인 학과는 정시 가군의 한의예과로 21명 모집에 280명이 지원해 13.33대 1을 기록했다. 정시 가군의 물리치료학과는 3.60대 1, 간호학과는 3.32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목포대 역시 평균 2.4대 1로 지난해 3.34대 1보다 하락했다. 정원내 경쟁률은 2.50대 1, 정원외는 0.48대 1을 기록하며 평균 2.4대 1을 보였다.

이처럼 지역 주요 대학 정시모집 경쟁률이 하락한 원인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수능 응시생 감소 때문이다. 실제 광주 지역 재학생은 지난해 대비 2172명 감소한 1만 2433명(75.9%), 졸업생은 46명 감소한 3458명(21.1%)이 수능을 치렀다. 전남에서는 총 1만 4208명이 접수, 2020학년도 대비 수험생이 1785명(11.2%) 줄었다.

여전한 수도권 쏠림 현상도 지역 대학 신입생 충원을 낮추는 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이번 경쟁률 하락이 예견된 일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학생수 감소에다 수시 중복 합격자 이탈에 따른 정시모집 추가 선발, 즉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된 미충원에 따른 수시 이월 인원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역 각 대학들은 파격적인 장학혜택과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신입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감소한 가운데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증가에 따른 정시모집 규모 확대가 겹쳐 대부분의 지역 대학에서 정시모집 경쟁률이 하락했다"며 "이번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입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대학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기초학력을 높여라 전남교육청, 프로그램 운영

전남교육청이 겨울방학 기간 지역·중·고 226개교와 22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에서 학생 5321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초기문해력과 기초수해력, 영어 발음 교육, 교과학습향상반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중학교는 영어, 수학 기초학습반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향상하는 1:1 멘토링 등을 운영한다.

22개 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는 학습적·비학습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430여명을 대상으로 기초학력과 학습동기 강화 프로그램, 1:1 개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들은 중·하위권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학습 부진에 따른 학력 격차 해소를 꾀한다는 목표로 운영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년 동안 계속된 코로나19와 원격수업으로 인해 기초학력 저하와 학력 격차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빈틈없는 지원으로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한 아이의 배움도 포기하지 않는 촘촘한 기초학력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교육청 '중이 없는 회의'

광주교육청이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 일환으로 '중이 없는 회의'를 진행한다.

12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에 따르면 환경 위기 극복과 친환경 가치 확산에 앞장서기 위해 이날 열린 화요일정책회의에서 '중이 없는 회의'를 시범 운영했다.

시 교육청은 기후 위기 대응 기조에 발 맞춰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트북에 자료를 미리 탑재하게 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시 교육청은 '중이 없는 회의'가 종이 절약·문서 출력 시간 감소·신속한 업무 공유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증가·회의자료 보안과 관리 측면 등에 있어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자원 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의 일환으로 시작했다"며 "다른 회의도 친환경 업무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졸업축하는 학교 밖에서 12일 졸업식을 마친 광천초등학교 학생들이 교문 앞에서 가족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날 졸업식은 코로나19 감염증 우려로 학부모와 하객의 참석이 제한됐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여성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선정

3년간 2억원 지원

광주여성상이 특허청 공모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 학교로 최종 선정돼 올해부터 3년 동안 2억여 원을 지원받는다.

직업계고 발명·지식재산교육 지원 사업은 특허청이 발명·지식재산 분야의 전문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산업인력과 지식재산 소양 능력이 있는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사업에 참여한 학교를 모집했다.

광주여성상은 서면 평가, 현장 실태조사, 학교장의 발표평가 등 절차를 거쳐 매년 7600만 원씩 3년 동안 총 2억 2800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김진수 광주여성상 교장은 "학생들의 노력과 교사들의 헌신적인 지도, 학부모들의 뒷바라지가 어우러져 취업률 특성화고의 명맥을 이어가게 됐다"며 "앞으로도 광주여성만의 맞춤형 취업·진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찾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학원 '선행학습 암시' 유인 광고 대책 마련을

광주지역 일부 학원이 선행학습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에 불구하고 자극적인 선행학습 광고를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학벌 없는 사회)은 12일 자료를 내고 학벌 없는 사회가 광주 학원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을 실제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이 '중 1, 2, 3 국어는 고등부 수업 진행' 등 유인성 문구로 광고중이라고 주장했다.

2014년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 금지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 내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어떠한 행위도 못하게 했으며, 학원은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 이 법으로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는 규제됐지만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부 학원들은 여전히 겨울방학을 맞아 상품 증정이나 할인 등 자극적인 광고를 통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을 위한 선행학습 특강을 개설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벌 없는 사회는 "학원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선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규정을 어길 경우 벌칙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하다"고 밝혔다.

/김대성 기자 bigkim@

호남대 LINC+사업단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선정

호남대학교 LINC+사업단이 한국산업단지공단 '2021년도 자율형 산학연협의체'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

자율형 산학연협의체(미니 클러스터, MC)는 중소기업이 직접 운영 주체로 활동하는 수평적 기술혁신 네트워크로, 호남대 LINC+사업단은 산업단지 입주 기업 34개사를 비롯해 연구소와 지원기관 등 총 59개 회원으로 구성된 MC를 중심으로 '스마트전자-에너지융합 산학연협의체'를 꾸렸다.

이 협의체는 내년말까지 2년 동안 기업현장의 수요를 중심으로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정보를 교류하는 네트워크 사업 ▲R&BD 전후방 단계지원을 통한 사업화 촉진 ▲공동비즈니스모델 발굴과 연구과제 기획 및 R&D를 지원하는 연구개발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 기술 혁신역량 증대와 사업다각화, 기술지원을 통한 회원사 경쟁력 제고,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가전산업의 부품산업 및 관련 서비스 분야 확대를 위한 신규생태계 구축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8주년!!

2021년 신축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목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목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철재시공모습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